

제주사회복지신문

>2018년 2월 1일 <월간>

www.jejubokji.net

>전화 : (064)702-3783~4 / 팩스 : (064)702-3383 제124호

2018년 달라지는 사회복지시책

‘노인복지’ 예산 25% 증가

올해부터 바뀌는 다양한 사회복지 시책을 아동·보육, 여성·가족, 노인, 장애인, 보건·위생, 생활보장 등의 분야로 나눠 알기 쉽게 정리했다.<편집자주>



<아동·보육 분야> 어린이집 양육환경 개선

도는 어린이집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어린이집 영유아 간식비와 보육교사 장기근속 수당,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운영비, 장애아보육 치료사 처우 개선비, 가정 위

타아동 대학입학 준비금, 아동복지시설 입소아동 심리·정서 치료비 등을 신설키로 했다.

또, 읍면지역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교직원 교통

비도 기존 월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영유아 상해보험은 기존 생명·신체 활동, 돌연사 증후군 2개 항목에서 놀이시설, 가스 사고, 화재공제(건물) 3개 항목을 추가하는 등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여성·가족 분야> 아이돌봄 지원사업 확대

맞벌이 부부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아이돌봄 지원사업 지원 범위가 넓어진다. 추가되는 부분은 아이돌봄 이용단가와 시간제 지원시간, 아이돌보미 교통비,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이다.

또한 조손가정 등 결식이 우려되는 요보호아동의 급식비가 1일 1식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되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와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도 확대된다.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 장려를 위한 출산장려금도 기존 첫째아 10만원, 둘째아 20만원, 셋째아 60만원에서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이상 200만원으로 확대되고 만 0~5세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1인 월 10만원)이 신설된다.



<노인 분야> 경로당 운영 활성화 도모

도는 올해 기초연금 지원 등 다양한 노인인복지 정책 추진을 위해 전년대비 25% 증가한 2,669억 원을 편성해 지원한다.

특히 기초연금 인상, 노인 일자리 확대, 경로당 활동비 지원 대상 확대, 치매 안심형 노인요양 시설확충, 홀로 사는 노인 에너지 드림지원 사

업 확대 지원, 노인 인권보호 사업도 강화 추진하게 된다.

또 어르신들의 다양한 활동 거점 기능을 수행하는 경로당(읍·면·동 분회) 운영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사무장에게만 지원하던 활동비(월 100천원)를 경로당 회장과 읍·면·동 분회장·사무장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경로당별로 이용자수와

시설규모가 다름에도 냉난방비도 2017년 하반기 경로당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 유형별로 차등·확대 지원한다. 냉방비는 정액으로 연 30만원 지원하던 것을 면적 규모별 차등하여 연 30~60만원 지원하고 분기별 지원되는 난방비의 경우 규모에 따라 5단계로 88~132만원 지원 되었으나 7단계로 세분화해 88~154만 원으로 확대 지원 된다. 2면에서 계속



▲ 지난달 30일 협의회 삼다수홀에서 개최된 ‘무술년 사회복지인 신년인사회’에서 축배를 들고있다.

사회복지인 신년인사회 성료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는 30일 협의회 2층 삼다수 홀에서 ‘무술년(戊戌年) 사회복지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원희룡 제주시도지사, 김항국 도의회 부의장, 김태석 의회운영위원장, 이상봉 행정자치위원장, 김희현 문화관광스포츠위원장, 강경식 도의원, 김광수 도의원, 김명만 도의원, 이계영 제주도부교육감, 김석추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전용운 제8대 명예의 전당 등재자에 대한 자원봉사 배지 및 기념패 전달에 이어 내빈 새해 인사말씀, 교례, 축하 시루떡 절단식과 축배, 경

품권 추첨, 오찬 순으로 이뤄졌다.

이날 고치환 회장은 “제주도내 사회복지자를 위해서 힘써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주도 사회복지 수준이 높은편”이라며 “많은 사회복지인 여러분들과 함께 제주사회복지협의회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원희룡 도지사는 “앞으로도 복지 예산 비중이 20%를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행복한 복지공동체 제주’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도에서도 기부에 동참한 이들의 뜻을 담아 ‘광역 푸드뱅크 물품 보관 물류센터’를 2월 중에 준공해 도민들의 나눔의 가치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덧붙였다.

지면소개

- | | |
|--|-------------------------------------|
| ■ 종합 3면
장애인의 치료치료 제공 시스템 구축 | ■ 특집 7면
제8대 명예의전당 전용운씨 인터뷰 |
| ■ 사회복지소식 4면
중증장애인 사업장 ‘바그레 카페’ 개소 | ■ 기획 8면
시설탐방(93) - 디딤돌 그룹홈 |



사회복지법인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 아라종합사회복지관 · 아라어린이집 임직원 일동

2018년 달라지는 사회복지시책



〈장애인분야〉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 운영

장애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장애인연금 인상, 장애인 활동보조인 급여 단가 인상, 장애인 일자리 급여 등이 인상된다.

먼저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월 119만 원에서 121만 원으로,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가구는 월 190만

4000원에서 193만6000원으로 오른다.

또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액이 9월부터는 월 20만 6050원에서 25만으로 4만3950원이 인상돼 지급된다.

활동보조인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단가도 9240원에서 1만760원으로(16.5%증) 인상된다.

이와 함께 장애인 인권보호 안전망 구축과 복지시설 인프라도 확충된다.

먼저 1월부터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과 '장애정소년 직업지도 센터'가 운영되고 발달장애인의 재활서비스와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가칭)발달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사업이 지난해 건축설계 공모를 마치고, 올해 상반기 중 실시설계를 해 본격적으로 건립 추진된다.

☞ 1면에서 계속



〈보건·위생분야〉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

사망률 1위인 폐암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고위험 흡연자를 대상으로 무료 폐암검진 사업이 추진된다.

또 정신의료기관 등에 장기간 입원·입소 후 퇴소한 사람들이 조속한 일상복귀

와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정신질환자 자립촉진비도 지원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평일 시간대에 영·유아 건강 검진을 받기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한 영·유아 야간 건강 검진도 실시된다. 검진기관은 가족

보건의원으로 주 2회(매주 화·목요일) 오후 7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도민의 건강한 구강질환예방을 위해 6월 소양치용액을 배부하고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대상이 기존 만 6개월에서 5세미만에서 만 6개월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생활보장 분야〉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

2018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451만9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5만 2000원 인상(1.16%↑)된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가구 기준 2017년 134만원에서 135만5000원으로 인상(1만 5000원)된다.

급여별 선정기준(4인가구)을 보면,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인 135만 5000원 이하,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인 180만7000원,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3%인 194만 3000원, 교육급여는 중위소득의 50%인 225만 9000원 이하의 경우 개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실질적으로 생활이

곤란하지만 여러 가지 사유 등으로 기초수급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도민들에게 한시적 특별생계비 확대 지원을 위해 도 자체예산 6억원을 확보, 지원할 계획이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소득·재산 조사 등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로도 도움이 필요할 경우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제주도 장애인 생산품 구매 확대

지난해 30억원 구매...전년보다 59% 증가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30억4100만 원으로 2016년 17억8600만 원보다 58.7%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제주도가 목표한 우선구매비율 1.16%를 달성한 수치이기도 하다.

도내에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0개소에 356명의 장애인들이 직업훈련과 함께 화장지류·종이컵·복사용지·카트리지·상패·화훼·물수건·종이컵·제과제빵·된장·양초·햄·소시지를 생산하고 있다. 또 세탁업·카페(플로베, 아이갓에브리씽, 바끄레)·숙박·청소용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한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인 경우 기관 총 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하도록

돼 있다.

오무순 제주도보건복지여성국장은 “올해에도 도내 공기업, 제주도청 산하 각 부서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인식개선 및 홍보 판촉물 제작 등을 실시해 장애인들의 안정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현황

시설명	주요생산품목
춘강	복사용지, 카트리지, 세탁, 전통의류
일배움터	화훼류, 고사리, 무말랭이
해정원	상패, 현수막, 도자기
한라원	쿠키류, 케익
길 직업재활센터	종이컵, 위생컵, 빵
희망나래일터	현수막, 명함, 소풍백
엘린	호텔, 청소용역
아울림터	된장, 간장, 양초
에코소랑	화장지류, 음료(발효원액)
평화의마을	소시지, 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나눔”

1월 기탁 현황

▲금강축산유통=축산물144kg ▲유진상사=오투기식품3,178개 ▲김만덕기념관=쌀200kg ▲농업회사법인 서문식품=두부321모 ▲던킨도너츠 제주외도점=도너츠15개 ▲돌담길에 수선화=떡60개 ▲동원F&B 제주지점=동원식품1,742개 ▲모양=제과류68봉 ▲미인빵=빵76봉 ▲빠라빠빵=빵2봉 ▲아라파파=떡234개 ▲이든이네=건어물18kg ▲제주보리촌=보리빵892개 ▲(주)쿵스토퍼 제주이도점=빵148봉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감귤쥬스200개

· 기탁문의 : 사랑나눔푸드마켓 · 문의전화 : 064-758-1377

희귀난치성질환·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

제주시, 항공료·선박료 실비 등 최대 12회까지

제주시는 저소득층의 도외 진료시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다.

대상은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만성신부전, 혈우병, 파킨슨 병 등) 및 중증질환자(암, 뇌혈관질환, 백혈병 등)다.

지원은 환자본인과 아동복지법에 의한 만 18세미만 환

자의 동반보호자 1인에 대해 일반석 항공료 또는 선박료 실비를 연간 최대 12회(왕복)까지 이뤄진다.

단 KTX, 열차비 등 현지교통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신청은 진료일 또는 입·퇴원일을 기준으로 전후 1주일 이내의 탑승권 및 진료비 영수증 등을 구비해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제주시청 기초생활보장과로 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도외 진료교통비가 적기에 지원돼 저소득층 질환자 및 가족들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153명에게 8329만원의 도외진료 교통비를 지원한 바 있다.



사회복지협의회 2017년 12월 후원금 현황

(단위 : 원)

구분	후원금수입	후원금 사용액
재가결연후원	1,110,000	290,000
난치병환아후원	50,000	0
자원봉사후원	2,585,000	2,585,000
복지사업후원	1,005,000	1,249,525
푸드마켓후원	3,235,000	2,734,380

* 후원자님들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발행안내

- 발행인 : 고치환
- 편집인 : 고봉식
- 등록번호 : 제주라 01010
- 창간일 : 2007년 9월 1일
- 발행처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 주소 : 제주시 청풍남 8길 12-1
- 편집위원실 : (070)4726-8826
- 편집디자인 : 디자인리더제주

장애인의 치과치료 제공 시스템 구축

제주대학교 병원내 '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개소

제주도내 장애인들이 전문적인 치과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다.

제주도는 지난 12월 28일 제주대학교병원 내 제주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제주도에 따르면 그동안 도내 장애인 전문 치과병원이 없어 장애인 치과치료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장애인 구강진료센터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지난 2015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선정돼 리모델링으로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건물을 신축해 설치하기로 사업을 변경한 후 2017년 12월 제주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완공했다.<사진>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도내 중증장애인에 대한 전문적 치과진료와 치과응급의료체계의 중심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1차 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뢰된 2차 치과진료와 전신마취 등 고난이도 치과진료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올해는 사업비 1억4000만원으로 장애인 진료비중 비급여 부분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내용은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비급여 진료비 총액 50%,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기타 장애인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이다.

지원은 진료비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받을 수 있다.

한편, 제주도 등록 장애인 수는 2016년 12월 기준 약 3만4278명이다. 문의전화 717-1840.

도내 사회복지시설 정보 한눈에

제주도내 사회복지시설·단체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가 '2017 제주 사회복지 편람'을 발간하고 온라인상에서도 확인 가능한 '제주 사회복지 온라인 지도'(<http://map.jejubokji.net>) 시스템을 구축했다.

'제주사회복지편람'에는 2017년 12월까지 확인된 제주지역 295개 사회복지시설·단체에 대한 기본현황과 필요로 하는 후원, 자원봉사활동 내용 등이 수록됐다.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 현황을 보면 장애인복지 분야가 86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노인복지 분야(73곳), 아동·청소년복지 분야(70곳), 지역복지 분야(38곳), 여성·가족복지 분야(17곳) 등으로

나타났다.

이 내용들은 '제주 사회복지 온라인 지도'시스템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제주 사회복지 온라인 지도' 시스템에는 편람에 수록되지 못한 사회복지시설·단체를 포함한 432개 시설·단체에 대한 정보검색 기능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제주 사회복지 온라인 지도'는 인터넷 주소창에 '제주 사회복지 온라인 지도(www.map.jejubokji.net)' 주소를 입력해서 접속하거나 협의회 홈페이지(www.jejubokji.net) 접속 후 '제주 사회복지 웹 지도'를 클릭하면 된다.

도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편람발행과 온라인 시스템 구축으로 도민들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SSN 제주사회복지협의회 소식

협의회 소속 봉사단체 활성화 방안 모색

자원봉사연합회 지난달 18일 임원회의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소속 자원봉사연합회는 지난달 18일 협의회 1층 바람소리홀에서 자원봉사연합회 '제1차 임원회의'를 개

최했다.<사진>

이날 회의에는 원석철 자원봉사연합회장을 비롯한 연합회 임원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회의는 무술년 사회복지인 신년인사회 행사지원, 자원봉사연합회 정기대의원 총회 개최, 18년 소속봉사단체 연합활동(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등을 논의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원석철 회장은 "올 한해도 여러 봉사단체들의 협조아래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함으로써 더욱 더 발전되고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웃사랑 물품 전달



국제로타리클럽 3662지구 (총재 동산 강태범) 사무팀과 제주만덕로타리클럽(회장 칸나 백선옥)은 지난 12월 28일 애월읍사무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가 운영하는 제

주광역푸드뱅크에 약 450만원 상당의 이웃사랑 물품(쌀 1,500kg)을 전달했다.<사진>

기탁된 물품은 제주광역푸드뱅크를 통해 애월읍에 위치한 경로당과 사회복지시설로 전달될 예정이다.

제주에너지공사 나눔 실천 '훈훈'



제주에너지공사(사장 김태익) 임직원은 지난 12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제주시

랑나눔 푸드마켓을 방문, 식품나눔 자원봉사를 진행했다.<사진>

제주사랑나눔 푸드마켓은

지난 2009년 제주시에 개장한 편의점 형태의 기부식품 제공사업장으로서 제주시에서 추천한 1200여명의 저소득계층 및 복지시설에 기부식품을 제공하고 있다.

이날 제주에너지공사는 제주광역푸드뱅크에 500만원을 기부했다. 푸드마켓은 물론 사회복지시설 등 나눔이 필요한 곳에 식품이 전달될 예정이다.

제주은행 제주시청점 성금기탁

제주은행 제주시청점(지점장 김현근)은 지난달 9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를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이웃사랑 성금을 전달했다.<사진>

제주은행 시청점은 매년 도사회복지협의회를 방문해 이웃사랑 성금을 기탁하는 등 나눔을 실천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김현근 지점장은 "작은 나눔이지만 도내 도움이 필요한 이



웃들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따뜻한 커피·차 마시러 오세요”

서귀포시청 별관에 중증장애인 사업장 ‘바끄레 카페’ 개소

서귀포시는 지난달 9일 서귀포시청사 별관 1층에 중증장애인들의 사업장인 ‘바끄레 카페’를 마련하고 개소식을 개최했다.<사진>

‘바끄레 카페’는 공공기관 연계 중증장애인 창업형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지난해 4월 제주도로부터 사업비 1억2500만원을 배정받아 조성했다.

운영자는 지난해 8월과 9월 2개월에 걸친 운영기

관·단체 모집 공고 및 선정 심의 결과 사회복지법인 정혜원의 직업재활시설에 코소랑이 최종 선정됐다.

또 지난해 10월 내부적으로 카페 명칭을 공모하고 투표를 실시한 결과 시청사 별관의 뜻을 담은 제주어 ‘바끄레 카페’로 결정했다.

최근에는 커피 머신류 등 필요한 장비 설치 및 환경정비를 마무리했다.

카페는 중증장애인 청년 바리스타 4명과 매니저 1명이 운영하게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바끄레 카페’ 개소로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애인 취업알선 및 고용장려금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라어린이집, 우수 장애통합 프로그램 선정



아라어린이집(원장 이승희)이 진행하는 장애통합프로그램 ‘우리집에 놀러와’가 ‘2017년 제6회 장애통합 우수프로그램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

협의회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2017년 제6회 장애통합 우수프로그램 공모전’은 장애통합 보육 현장에서 직접 개발·운영한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보급해 장애통합 현장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사회적

인식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아라어린이집의 ‘우리집에 놀러와’ 프로그램은 2015년부터 가정과 연계해 꾸준히 실행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우리집에 놀러와’ 프로그램은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서로의 집에 초대해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놀이의 주도권을 갖기 어려운 장애아동에게 또래와 긍정적인 관계형성에 도움을 주고 있다.

프로그램은 만 2~4세 연령 2개반을 대상으로 각 반마다 1회씩 월 2회 실시되고 있다.

중증장애인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 운영

해정원장애인직업재활시설(원장 이민숙)은 2월부터 중증장애인의 직업유지를 위한 자아인식과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 ‘모두 함께 스마일’을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중증장애인들이 직업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놀이를 통해 비

폭력 대화에 대해 배우고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 스마일 키퍼스 프로그램과 함께 직장예절교육 등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함께 춤과 율동 등의 건강한 신체활동을 통해 직업생활의 스트레스를 날리고 신체기능을 유지할 수 있

도록 도와주는 스마일 댄스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한편 ‘모두 함께 스마일’ 사업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2월부터 대상자 모집해 11월까지 총 10개월간 해정원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관광약자 위한 제주관광 지도 제작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 접근성안내센터(센터장 고은호)는 관광약자들이 접근 가능한 제주관광지에 대한 정보를 담은 지도 ‘함께 가볼까요 제주 VOL.2’를 제작·배포한다.

관광지도는 약자들의 제주관광 접근성 확보 사업 일환으로 진행된 제주도내 관광지 접근성 모니터링 전수조사를 통해 확보한 접근 가능한 관광지 정보를 묶어 제작됐다.

지도에는 경사로 등 접근 정보가 알기 쉬운 픽토그램으로 표현돼 있다. 관광약자 당사자의 모니터링을 통해 드러난 이용시 주의사항도 함께 수록됐다.

또한 외국인 관광약자를

위한 영문 버전도 제작해 2018 평창 올림픽 패럴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단에게도 배포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안내센터는 ‘장애in제주’ 어플리케이션과 접근 가능한 관광 콜센터 운영 등을 통해 모두를 위한 접근 가능한 제주관광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장애in제주’ 어플리케이션은 안드로이드의 경우 플레이스토어에서, 아이폰의 경우 앱스토어에서 ‘장애in제주’를 검색하면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관광지도 ‘함께 가볼까요 제주VOL.2’ 배포 문의는 접근 가능한 관광 콜센터(1566-4669)로 하면 된다.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지정

희망나래 일터, 인쇄물 쇼핑백 품목

희망나래 일터(원장 최영열)는 2017년 12월 제주지역 최초 ‘인쇄물, 쇼핑백’품목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 받았다고 밝혔다.

희망나래일터의 주 생산품인 인쇄물(포스터, 명함, 카달로그, 교재, 리플렛, 각종 인쇄물, 현수막, 광고홍보물 제작)사업은 전문 인력이 디자인 하는 등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쇼핑백은 근로장애인들의 땀과 정성으로 제작하고 있다.

희망나래 일터의 수익금은 전액 생산에 필요한 재료구입과 장애인재활급여

에 사용된다.

생산품 안내는 희망나래 일터 홈페이지(<http://www.hncoop.c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구매 관련 문의는 전화(751-5152)로 안내 받을 수 있다.

한편 희망나래일터는 장애인 보호 작업장으로 중증장애인에게 직업재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적응 훈련, 직무기능 교육 등을 통해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이다.

현재 중증장애인 20여 명이 근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보도자료 접수 안내

제주사회복지신문은 도내 사회복지소식 보도자료를 매달 22일까지 제주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 ‘생활게시판 “알림” - 보도자료’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 소/식/마/당

(무순)

이웃사랑 물품 전달



유원펌프카 원석철 대표(이하 원 대표)가 지난달 3일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지환)가 운영하는 제주광역푸드뱅크를 방문해 100만원 상당의 이웃사랑 물품을 기부했다.

원 대표는 “새해를 맞아 어려운 이웃들에 희망을 전하기 위해 작은 정성을 보낸다.”며 “앞으로도 더불어 사는 행복한 제주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자장면 120인분 대접



정통중화요리 아래향(대표 이현석)은 지난달 22일 아래향에서 사회복지법인 정혜원 시설 장애인 및 직원들을 초대해 자장면 120여 인분 대접했다.

아래향은 매달 1회 월요일마다 정혜원 가족들을 위해 자장면을 후원하면서 따뜻한 정을 나누고 있다.

이현석 대표는 “앞으로도 자장면 후원을 통해 장애인분들과 함께 호흡하고 소통하며 따뜻한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새해맞이 한라산 등반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관장 강철남)는 지난달 3일 아동 15명을 대상으로 ‘2018년 무술년 새해맞이 한라산 등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새해 희망찬 발걸음을 내딛기 위한 한라산 사라오름 등반, 환경정화 활동, 자립미션 등으로 구성됐다. 또 한라산의 아름다운 설경을 감상하며 새해의 목표를 세우고, 가족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희망나눔종합지원센터(센터장 김성자)는 지난 12월 14일 센터 2층 프로그램실에서 노숙인 및 노숙관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인문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인문학(문학 역사 철학)을 통해 개인의 감수성, 정체성이 회복되고 개인과 사회에 대한 소명의식을 갖게 함으로써 노숙탈피에 더욱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화상품권 기부



대정고등학교(교장 우옥희) 학생자치회(회장 송현석)는 지난달 15일 대정지역아동복지센터를 찾아 ‘제32회 산방제’ 동아리부스 운영 수익금 20여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기부했다.

학생자치회는 지난해 12월 26일부터 27일까지 축제를 진행하면서 아동요리 요리체험반과 바리스타반의 카나페와 핸드 드립 커피 등 부스를 운영해 다양한 음식들을 판매했다.

토요꿈나무교실 프로그램 개강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상언)은 지난달 20일 제26기 토요꿈나무교실 프로그램 개강식을 개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토요꿈나무교실’로 지역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되는 교육문화프로그램이다. 이번 학기에는 바른글씨반, 가베반, 발레반, 종이접기 자격증반, 독서논술반 등 총 27개 강좌가 개설돼 546명이 등록했다.

유자차 만들기 행사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명옥)소속 제주여성자원활동센터(회장 김애숙)는 지난달 12일부터 14일까지 자원봉사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자원봉사활동 기금마련을 위한 유자차 만들기 행사를 실시했다.

제주여성자원활동센터는 매년 유자차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으며, 판매에 따른 수익금은 도내 사회복지시설 및 소외계층에 대한 재료비 지원과 독거노인 위문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눈썰매장 개장



창암재활원(원장 정은경)은 지난달 10일 창암재활원 뒤뜰 눈썰매장에서 이용인과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창암재활원 눈썰매장’을 개장하고 눈썰매를 타는 등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창암 재활원 관계자는 “매년 겨울이면 창암재활원에서만 즐길 수 있는 눈썰매 타기는 이용인분들에게 겨울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다.

사업설명회 개최



도남동청년회(회장 강지연)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문교정)은 지난 12월 19일 이도2동, 도남동 지역주민 및 자생단체가 참여하는 ‘우리 손으로 만드는 안전한 도남마을 만들기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경과보고, 지역사회 교통사고 현황 발표, 주민발표, 안전한 도남마을 만들기 비전선언, 사업 목적 및 추진계획 설명 순으로 진행됐다.

이웃사랑 물품 전달



사단법인 희망을 나누는사람들(대표 김정안)은 지난 12월 20일,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지환)가 운영하는 제주광역푸드뱅크를 찾아 5000만원 상당의 이웃사랑 물품(생활용품 등)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물품은 기초푸드뱅크 및 푸드마켓을 통해 도내 저소득 계층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제1차 직원교육 실시



희망나래활동센터(원장 박인향)는 지난달 10일 센터에서 원장과 직원, 신입직원을 포함한 법인산하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제1차 직원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직원교육에서는 희망나래활동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운영 목표, 희망나래활동센터, 희망나래 일터의 슬로건을 만들고 서로 공유하는 의미있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뇌변병장에 복지전문가 과정 수료식



제주장애인요양원(원장 정석왕) 부속 제주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지난 12월 5일 센터에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15명이 참여한 가운데 뇌변병장에 복지전문가 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

뇌변병장에 복지전문가 과정은 뇌변병장애의 이해, 인권, 생애주기에 따른 접근법, 보완대체의사소통, 자립과 직업, 정책이해 등 6개 과정 20개 강의로 구성됐으며 올해에는 3월~5월 10주의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론

안다는 착각

인간은 알아가고 지식이 쌓이게 되면 자신이 그것에 대해 몰랐던 순간이 있었던 것을 자주 잊어버린다. 마치 개구리가 올챙이시절이 있었음을 모르는 것처럼. 이것은 뇌의 망각의 특성 때문만은 아니다.

다니엘 부어스틴은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무서운 적은 무지가 아니라, 안다는 착각이라고 하였다. 우리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와 이

성장 막는 가장 무서운 적

를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인간은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며 한계를 인정하고 부족함을 채우고자 하는 과정을 통해 성장하게 된다.

안다는 착각은 엄밀하게 말하면 모른다는 것과 같다. 타인에게 자신의 무지를 감추고 적당히 포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자신은 속일 수 없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자신을 세심하게 관찰하지 않거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기고

얼어붙은 ‘기부문화’... 위기를 기회로



강 우 중

남원읍사무소

어느덧 다사다난했던 2017년 정유년해가 지나고, 무술년의 새해가 밝아왔다.

하지만 아직 지나지 않은 쌀쌀한 겨울날씨만큼 올해 기부단체에 대한 불신이 겹치면서 사회전반에 ‘기부 가뭄’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2017년 전국 기부자수가 1년 만에 7만 명 가까이 줄면서 2006년 관련 현황을 처음 집계한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이런 ‘기부문화’를 얼어붙게 한 이유는 전 국민들을 경악하

고 인간은 모든 것을 다 알지도, 다 담고 살아가지도 못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채워지는 지식도 있지만 잊어버리는 것도 있기 때문이다. 뇌는 새로운 정보를 입력하기 위해서 이미 입력된 내용을 걸러내는 작용, 즉 망각의 작용을 한다. 그러므로 기억하고 있는 지식이 온전히 보존되기보다 재구성되거나 왜곡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보존하거나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해 끊임없이 탐구하여 새로운 정보를 입력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기통제력을 바탕으로 한 비판적 사고능력이 필요하다

현실에 놓인 문제나 현상에 관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탐구하고 관찰하는 것과 주어진 결과나 현상을 비판적 관찰이나 검토 없이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스스로 탐구하는 과정은 정보검색을 통하여 금방 답을 찾고 이미 결론이 내려진 정보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보다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나 정보를 선별

하고 새로운 정보를 지식으로 만드는데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수많은 정보들 속에서

비판적 사고 능력 필요

유용한 지식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보 수집가가 아니라, 정보 선별가와 지식 창조가라고 할 수 있다. 정보의 선별과 지식의 창조에 대한 가치를 안다면, 뇌의 망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망각이 있기에 새로운 것을 탄생시키고 입력하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알고 있는 것과 안다는 착각을 구분할 수 있는 깨어있음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고 보 선

제주국제대학교 교수

칼럼

눈만 뜨면 카톡

요즘 젊은이들 눈은 스마트 폰에 눈이 흘려 있다.

카카오톡에 새 글이 계속 뜬다. 일단 채팅방에 알려지면 빠져나오기 쉽지 않는 모양. 스트레스 받아 탈퇴했다가도 재가입하는 수가 많다. 이 단계에 들면 새장에 갇힌 새 꼴이 된다.

인터넷 중독 상담예방센터에서 예사롭지 않은 진단을 내놓았다. “스마트 폰을 사용할 때도 파밍이라는 ‘쾌락호르몬’의 분비가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SNS를 확인하려는 반복되는 욕구로 일상에 장애를 줄 만큼 조절력을 상실하게 된다.”

주목할 게 있다. SNS에서는 재력·권력·사회적 지위·신체적 매력 따위는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현실적으로 고립된 사람이 SNS에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한 교수는 “실제 대인 관계에서의 고립감을 크게 느낄수록 SNS의 몰입도가 높은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는 한 개인에게나 사회 전체적으로 SNS를 통한 의사소통이 실제 현실세계의 의사소통을 압도하는 ‘역전’이 나타나는 것이라, 매우 부정적인 현상이라는 얘기도.

SNS 의사소통 현실세계 소통 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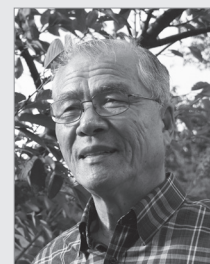
대기업의 간부, “고교 동창 밴드에 가입했는데 처음엔 교훈적·감동적인 글, 우스개 같은 콘텐츠였다 세월호 이후 몇몇이 정치적 성향을 띠면서 분위기가 어정쩡해졌다. 동의할 수 없지만 대놓고 반박할 수 없어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SNS는 당초, 사회적 친교 수단이자 뉴스의 통로로 자리 잡았던 것인데, 이젠 과도한 몰입에 따른 병리현상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이 분명해졌다. 조사를 보면, 2011년 8.4%였던 인터넷 중독 위험 군(群)이 2014년엔 11.8%로 나타났다 한다. 그중 중독증세가 높은 위험 군의 비중도 1.3%나 된다 하고.

어린이들도 스마트 폰 중독이 문제가 돼 부모들의 큰 고민거리다. 초등학교 하룻길, 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휴대전화 게임에 빠져 시간 가는 줄 모르는 풍경이 쉽게 목격되는 작금이다.

“학원에서 스트레스 받은 게 게임하면 확 날아가요.” 어린 학생 입에서 나온 말이다. 아이들에게 가장 위험한 휴대전화 기능은 말할 것도 없이 ‘게임’이다. 화려한 화면, 자극적 음향에 끌려 말을 배우고 사회성을 키워야 할 중요한 시기에 회복할 수 없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지나칠 일인가.

그들의 성장 잠재력이 휴대폰 화면에 갇히지 않게 세심한 관찰과 지도가 절실한 때다.



김길용

편집위원·칼럼니스트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 제8대 명예의전당 전용운씨 인터뷰



“이·미용 봉사활동 꾸준히 실천 하겠습니다”

제주지역에서 꾸준한 나눔실천을 통해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 25년이 넘는 시간동안 한결 같은 봉사활동 실천으로 제8대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전용운 씨의 이야기를 들어봤다.<편집자주>

어려운 가정환경 딛고
25년 동안 봉사 실천

“명예의 전당에 등재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봉사활동을 실천하겠습니다.”

자신의 재능을 십분 발휘해 25년이 넘는 시간동안 묵묵히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전용운 자원봉사자가 (67)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 제8대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

어려웠던 가정 형편으로 넉넉하지 못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는 ‘결혼을 하면 남

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자고 항상 다짐했었다.

그 후 1992년부터 현재까지 매월 도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꾸준히 무료 이용봉사를 펼치고 있다.

“처음 봉사활동을 시작할 때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형편이어서 반대가 많았어요. 그래도 봉사활동을 하기로 굳게 다짐했기 때문에 멈출 수 없었어요.”

처음에는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다가 입소문을 타면서 그의 손길을 원하는 곳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했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자 및 장애인근로센터 근로장애인, 준강의원 장애인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갔다.

특히 그는 이·미용 전문가들과 뜻을 모아 이미사로 모임을 결성,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이·미용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또, 이동하지 못하는 재가장애인 가정에 직접 방문해 이·미용 봉사활동과 더불어 가정봉사활동도 병행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

고 있다.

꾸준한 봉사활동을 실천한 결과 전 자원봉사자에 2017년 11월까지 VMS등재 현황이 총644회, 1646시간을 넘겼다.

전 봉사자는 “아무것도 가

진 것이 없는 저에게 많은 보람을 안겨 준 봉사활동이 이제는 제 삶의 일부분”이라며 “제가 이·미용을 할 수 있는 순간까지 봉사활동을 멈추지 않고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랑스러운 제주인으로 커 가겠습니다”

JDC·도사회복지협의회 주최·주관, 재일제주인 후손 고향방문 진행

제주발전에 기여한 재일제주인 1세대의 후손들이 고향을 방문해 제주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느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이광희)가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가 주관한 재일제주인 후손 고향방문사업이 지난달 26~29일 제주도내 일원에서 진행됐다.

이번 고향방문사업에는 재일제주인 4~5세대 후손 57명 및 인솔교사 등 모두 64명

이 참여했다.

행사 첫째 날인 26일 재일제주인 후손들은 제주목관아를 둘러본 후 환영만찬에 참석했다. 이날 만찬에는 고치환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장의 환영사와 테라사와 갯이치 총영사의 축사 등이 진행됐다.

둘째 날인 27일에는 재일제주인들의 ‘고향사랑’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재일제주인센터와 일제 강점기의 아픔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알

뜨르비행장 등을 방문해 제주의 문화와 역사를 체험했다.

셋째 날인 28일에는 제주지역 청소년들과 함께한 ‘미션’ 수행을 통해 제주와 한결을 더 가까워졌다.

재일제주인 후손들은 제주지역 또래 청소년들과 팀을 이뤄 김만덕기념관, 동문시장 등에서 ‘제주의 역사알기’ ‘모두가 한마음 사진 찍기’ ‘제주의 전통시장 체험’ 등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면서 국경

을 초월한 우정을 쌓았다.

마지막 날인 29일에는 제주의 삼성혈을 방문한 후 메이즈랜드로 이동해 기념식수를 하고 방문기념 표지석을 설치하는 등 4박 5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고향방문에 참여한 한 학생은 “우리 조상이 이런 큰일을 해왔다는 것을 잘 몰랐었는데 제주도를 방문해 역사를 알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 됐다”며 “이것을 후손들에게 전해줘야 된다고 생각했다.”

고 말했다.

JDC 관계자는 “고향의 마음을 심어주면 이들이 성장했을 때도 ‘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고향 제주와 일본은 정말 끈끈한 정으로 연결될 수 있구나’라는 좋은 뜻이 이뤄질 수 있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도사회복지협의회는 이번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민단오사카본부에 감사패를 전달하는 등 협력관계를 유지해나가기로 했다.



▲ JDC가 주최하고 도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한 재일제주인 후손 고향방문 사업이 지난 12월 26~29일 개최됐다. 사진은 왼쪽부터 기념식수와 환영만찬 모습.

시설탐방

(93)디딤돌 그룹홈

언제든 찾을 수 있는 '든든한 엄마'

가정해체 등 위기아동 울타리로 자리매김

“엄마 사랑해요. 우리는 가족이 지요?”

부모님의 이혼, 가출, 가정폭력, 경제적 빈곤 등으로 가정해체 위기에 놓인 아이들에게 ‘우리집’이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곳이 있다. 바로 ‘디딤돌 그룹홈(원장 송일심)’이다.

디딤돌 그룹홈은 개인으로 운영하던 그룹홈이 거의 없던 지난 2007년에 설립됐다.

지인의 권유로 시작했지만 개인 혼자 그룹홈을 운영하는 것은 녹록치 않았다.

송 원장은 “처음 설립할 때만 해도 그룹홈이라는 시설 자체가 생소했고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다 보니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다”라며 “하지만 아이들과의 정이 깊어져 그만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디딤돌 그룹홈은 공동생활을 위한 일정 규칙을 제외하고는 전부 아이들의 의사를 존중한다. 아이들이 언제나 편안한 마음으로 지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주말마다 늦잠자고 싶은 아이들은 실컷 잠을 잔다. 또 텔레비전을 보고 싶으면 마음껏 보게 한다. 학원 역시 아이들이 직접 선택해서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07년 설립... 아동이 편안한 분위기 조성 자존감 높여 긍정적 효과...남자 그룹홈 목표

‘자유’와 ‘스스로 선택’이라는 디딤돌 그룹홈의 방침은 아이들에게는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하고 있다.

스스로 결정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를 갖게 하는 등 자존감을 키우자 아이들의 목소리와 표정도 한껏 밝아졌다.

송 원장은 “말 못하는 어린 아이라고 해서 상처에 대한 트라우마가 없는 것은 아니다. 아이들과 생활하다 보면 아이들의 상처가 행동으로 나타난다.”라며 “어린

시절 성장과정이 건강한 어른이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때문에 그룹홈 아이들은 전부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디딤돌 그룹홈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그중에서 송 원장이 가장 중요

한 프로그램으로 꼽는 게 ‘여행’과 ‘경제활동’이다.

그룹홈을 나가게 될 아이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독립심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자립교육은 고1때부터 시작된다. 단계별로 나눠서 2박3일 혼자 살아보기, 부동산 가서 집 임대하기 등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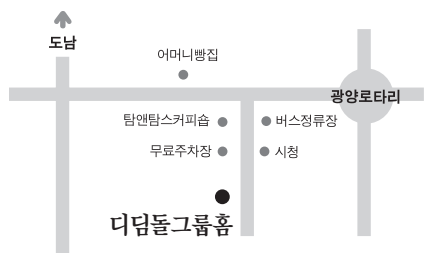
송 원장은 “24시간 상주해 일을 하다보면 몸이 지치고 힘들 때가 있다. 하지만 아이들이 자신들

의 용돈을 모아 생일선물을 사주기도 하고 어버이날에는 ‘엄마 감사해요’라며 손편지를 써준다. 아이들의 이런 따뜻한 마음 덕분에 서로 의지하면서 지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아이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서 송 원장의 목표도 더욱 뚜렷해졌다.

여성그룹홈이다보니 남매지만 떨어져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남성 그룹홈 운영을 고려하고 있다.

송 원장은 “지금 아이들이 ‘엄마’라고 부르며 잘 지내고 있다. 이 아이들이 그룹홈을 나가게 되더라도 언제나 엄마처럼 도움이 필요할 때 찾을 수 있는 든든한 산이 되고 싶다”고 전했다.



▲ 디딤돌 그룹홈은 부모님의 이혼, 가출 등 가정해체 위기의 아이들에게 우리집과 같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다.

[찾아가는 서민 법률 주치의] 법률홈닥터 49

통장에서 사라진 기초생활수급비



황인철 변호사
제주지역 법률홈닥터

B씨(남, 50대)는 지적 장애인으로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며 고령으로 인해 신체 거동이 불편한 누나의 보호 아래 국민기초생활수급비를 받

아 생활하고 있었다. 어느 날 B씨와 누나는 은행으로부터 예금통장에서 돈을 출금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항의하였다. 은행직원은 압류추심 결정문을 보여주며 B씨와 누나에게 예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설명을 해주었지만 온통 이해하기 힘든 용어들 뿐이었다.

◆ 압류방지통장으로 수급비 보호를

B씨는 2016년에 서울의 법원으로부터 소송 서류를 받은 적이 있었다. 2006년에

발생한 채권 650만원을 갚으라는 내용의 소송이었는데 B씨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해 그냥 방치하였고 소송은 B씨의 이의 제기가 없어 원고의 승소로 마무리 되었다. B씨 명의로 작성된 계약서가 문제였다. 사실 B씨는 2006년 경에 실종상태로 서울에서 발견된 적이 있었는데 이 때 누군가 허위의 계약서를 만들어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

위의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향후 수급비를 보호하기 위한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

하는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 압류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수급비가 일반 통장으로 입금되면 다른 돈과 섞이게 되어 사실상 압류가 이루어지게 된다. 압류방지통장은 이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전용 통장으로 대부분의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다.

◆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으로 압류를 풀자

다음으로는 현재 통장 안에 묶여 있는 금액의 일부를 찾기 위한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을 법원에 하여야 한다. 만약 채권자가 위예금을 이미 찾아간 후라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채권자가 찾아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 과정은 모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예금주가 혼자 힘으로 진행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서 법률구조공단의 소송구조제도를 통해 무료로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이 기사는 법무부 발간 '2017 법률홈닥터 우수사례집'에 실린 실제 사례입니다.